

트럼프가 항공모함으로 윤석열을 구출한다고?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반나절'은 어느 정도 시간일까?

예전에는 시계가 별로 없어서 한나절, 반나절 등과 같은 용어를 많이 썼다. 특히 어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면 "한나절 걸리지 않게 빨리 다녀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여기저기 해칠(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하고 다닌다고 꾸중도 많이 들었다. 아이들이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는 적이 없었다.

요즘 아이들은 반나절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르는 말인지 잘 모른다.

우리 '나절'이라는 말은 '하룻밤의 어느 무렵이나 동안, 혹은 하룻밤의 대충 절반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침나절'이라고 하면 '아침밥을 먹은 뒤부터 점심밥을 먹기 전 까지의 한나절 동안'을 이르는 말이고, '저녁나절'은 '해질 무렵부터 해가 완전히 지기까지의 시간', '나절가웃'은 '하루 낮의 3/4쯤 되는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반나절이라고 하면 '한나절의 반쯤 되는 동안'을 이르는 말이다. 그것을 굳이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나절이 하룻밤의 절반쯤 되는 시간'이므로, 반나절은 다시 그것을 반으로 나눈 시간이다. 하룻밤의 1/4 정도의 시간을 이룬다고 보면 된다. 두어 시간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다.

"태호는 농사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나절도 못되어 자치고 말았다"와 같이 쓴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학회 회장



스카이 View

이상준 편집국장

이재명이 미국에 가면 체포당한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한다? 극우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 축으로 여기고 탄핵을 당한 윤석열을 희생자로 본다. 이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을 구원할 메시아이자 사탄과 싸우는 천사 미카엘과 같다. 그러나 극우세력 희망을 짓밟기라도 하듯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모함도 윤석열 구출이 아닌 일본 총리 접대에 사용됐다.

유독 더웠던 올 여름 극우세력은 환호했다. 이재명이 방미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트럼프는 숙청과 혁명을 언급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트루소스 설에 올린 트럼프 글 때문에 이재명 체포설이 그럴 듯해 보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한술 더 써서 "공산혁명에서나 볼 법한 반인권 행위로 인식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우세력과 야당 의원 집착과 달리 트럼프는 이재명을 반겼다.

오히려 트럼프는 가짜뉴스를 비웃었다. 트럼프는 8월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입구에서 이재명과 악수



인터넷 커뮤니티 에펠타코리아에 29일 게재된 한강과 항공모함의 합성사진. 극우세력을 비교는 듯 글쓴이는 "그래서 항공모함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는 제목과 함께 "급하다. 한강공원에서 맥주 마시면서 기다리는 데 스텔스 모드인가? 안 보이네"라고 말했다. 에펠타코리아

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숙청을 걱정하고 있나?" 취재진이 트럼프에게 묻자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말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가짜뉴스라고 부른다.(We call them the fake news)" 윤석열 탄핵을 숙청이라고 믿고 싶었던 극우세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보수언론조차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보도했다. "한미동맹 시험대 첫 허들은 넘었다(조선일보)" "추-트럼프 신뢰 첫발... 한미 관세협약 유지(동아일보)" "북미회담 피우자 트럼프 받았다(중앙일보)"

항공모함도 극우세력의 희망을 꺾었다.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미 해군 7함대는 핵추진 항공모함(조지 워싱턴호)을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시켰다. 항공모함이 윤석열을 구출할 거라던 극우세력 희망과 달리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에 일본 총리와 함께 항공모함에 올랐다. 북한은 미일 정상의 항공모함 승

선을 앞두고 순항미사일을 쏘았다. 사실상 북미정상 회담을 거절당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극우세력이 싫어하는 북한에 대한 언급도 남달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29일 경주에서 이재명과 트럼프는 또 만났다.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즐겨 매던 트럼프는 더블어머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 나타났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화기에애한 만남은 결국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합의로 이어졌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한국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선 "항공모함은 언제 들어오는 거

냐"는 우스갯소리가 떠돌았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자 미국은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진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부탁한 지 하루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핵연료를 개발할 수 없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투자한 대가로 자주국방에 한걸음 다가선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유튜브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영상이 많다. 예를 들자면 무역협상에서 한국은 잘했는데 일본은 엉망이었다든가 한국은 신라 금관과 무궁화 대훈장으로 트럼프 환심을 샀는데 일본은 고작 황금 골프공과 아베 신조가 썼던 골프 퍼터를 선물했다는 영상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도 외교무대에서 트럼프와 친분을 쌓았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처럼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한국이 우리놈을 농축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더라도 일본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자위대를 군대로 바꿀지 모른다.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과 더 친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안보환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음모론이 아닌 부국강병에 신경을 쓸 때다.

jun@skyedaily.com

부동산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



데일리 Talk

이세희 산업경제부 기자

얼마 전 '부동산 세금 절세' 세미나를 취재했다. 단기간 급등한 집값과 세금 불안이 겹쳐서인지 강의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들은 핵심은 명확했다. '세금은 법이 아니라 생활이 만든다'는 것이다. 같은 규정이라도 실제 생활의 기록과 타이밍을 갖춘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우선 절세 전략은 '갈아타기'가 대표적이다. 새 집을 먼저 사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교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새 집의 보유기간이 흘러가므로 시차를 두고 매도채취득을 설계하면 매년 요건을 맞출 여지가 생긴다. 다만 취득 시기가 1년 이내로 겹치

면 적용이 깨질 수 있어 달력 관리가 필수였다. 결국 핵심은 '언제 잔금·등기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가'로 귀결됐다.

상속에선 주택을 오래 보유한 집과 짧게 보유한 집을 상속인별로 단독 귀속시키면 주택 수가 분리되고, 이후 양도세 비교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가 쉬워졌다. 반대로 형제자매가 집을 1/N로 나누면 모두 다주택자가 돼 설계가 꼬였다.

혼인·동거 특례도 기억할 만 했다. 각자 1채를 가진 예비부부가 결혼하면 합가 시점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비교세 기회가 생긴다. 60세 이상 부모와의 합가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전입일, 공과금·교통카드 사용자, 임대차 관계 등의 증빙으로 생활권 분리합가의 흔적을 일관되게 남겨야 했다.

'6개월·3년·10년'이라는 숫자로 중요했다. '6개월'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거래가가 확정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실상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사는 또 "상속세 신고 시점과 매각 시점을 6개월 내로 맞추는 '타이밍 조정'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3년'은 새 집을 먼저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교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년'은 혼인·직계존속 봉양에 따른 합가 특례였다. 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비교세 기회를 부여한다. 10년 안에 먼저 팔 주택을 정하고, 전입·생활권 기록을 일관되게 남겨야 했다.

중여세 부문에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전환할 때의 예를 들었다. 시가 12억 아파트를 5대 5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으로 바꾸면 아내 지분 6억이 이전된다. 배우자 공제 6억으로 과세표준은 0이 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평가서, 등기 변경 서류, 수수료 영수증, 이체내역을 묶어 두면 훗날 매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다.

배우자 공제와 자금출처 소명을 '동시처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양도세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는 다운계약이었다. 한 번 잘못 쓴 계약서는 다음 거래에서 드러났다. 세무서는 계좌·수표 등 실제 자금흐름으로 10년간 추적한다. 적발 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이르기까지 더해지는 비용은 상상을 넘었다. 다운계약 같은 지름길을 거부하고, 전입·이체·계약서로 생활의 흔적을 남기는 '구준함'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결론은 분명했다. 절세의 성패는 '생활시간·증빙'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였다. 세금 규정이 있더라도 증빙과 소명을 통해 절세의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노트를 끄적이며 강의내용을 정리하자 꽤 묵직한 피로감이 밀려왔다. '일반인이 이 정도로 세세하게 절세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세는 '현대인의 숙명'이지만 쓸쓸한 기분도 들었다.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나마 정리한 뒤에나 겨우 강의장을 나설 수 있었다.

saylee@skyedaily.com

Sky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이상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드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7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 / 연 240,000원

스카이드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